

20대 통일의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변종현*

- I. 머리말
- II. 대학 통일교육의 의의
- III. 20대의 통일의식: 내용과 특징
- IV. 통일의식 형성의 배경요인
- V. 대학 통일교육의 결핍을 넘어
- VI. 맺음말

국문요약

대학 통일교육은 초중등학교 통일교육과 사회 통일교육의 경계 내지 주변에 위치해 있다. 그 결과 체계적인 접근은 물론 통일교육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연령상 20대에 해당하는 우리 사회의 대학생들은 사실상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시대를 선도해야 할 중심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의 통일의식과 통일의지는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포함하는 우리 사회 20대의 통일의식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20대는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이 낮고,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도 점차 무관심해지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를 당위적 감성적 차원보다는 실리적 이성적 차원에서 접

근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통일을 이끌어 갈 통일세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통일교육의 위상과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학 통일교육 전반에 걸친 재구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위에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과정의 유기적 조화,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의 통합, 그리고 남북한 관계 및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균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남북한 통일, 대학 통일교육, 통일의식조사, 남남갈등, 분단 관리 패러다임

I. 머리말

남북한 관계의 역사는 갈등과 대결, 화해와 협력이 교차하는 복잡한 전개양상을 보여 왔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엄격한 상호주의를 강조하였고 남북한 관계는 교착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단순히 남북한 간의 대화나 교류 협력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곧바로 남북한 통일로 연결된다거나 통일의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실현에 비가역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북관계의 정체 국면 속에서 통일교육을 중시하는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는 점이다. 교착상태의 남북한 관계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전향적인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 내부의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었고, 그만큼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남북한 관계의 전개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는 다른 차원에서 통일논의를 공론화하고 우리 사회 내부의 통일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진작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통일교육은 일반적으로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 통일교육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진정한 사회 문화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 양자 사이의 균형과 조화에 입각한 통일교육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명시한 통일교육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과 비교할 때 대학의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 내지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학 통일교육의 위상과 의의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 통일교육 어디에서도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통일시대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북한관이나 통일의식에 대한 객관적 검토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우리 사회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인식을 증진시켜 나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심사는 20대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우리 사회의 대학생들이 남북한 관계나 통일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이 왜 필요하며,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함은 물론 남북한 통일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대학 통일교육의 의의

남북한 통일은 통일교육의 결과일까? 통일교육을 통해 남북한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통일교육은 남북한 통일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통일교육 이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남북한 통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실적 차원에서 통일교육 보다는 동북아와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남북한 통일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 보다는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이 남북한의 통일 과정과 목표를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명시하는 가운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문제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규정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남북한 사이의 현실적인 통일방안에 조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통일정책에 종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통일정책의 변화는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교육 현장에도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많다.¹ 물론 통일교육이 통일방안의 정책적 기초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자율성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² 따라서 통일교육은 정부의 통일방안이나 통일정책에 부합하는 가운데 논리적으로 연계될 때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일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역량을 배양하고 나아가 남북한의 사회 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통일교육은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이른바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국민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은 이처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통일역량을 배양하고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 전반에 관한 의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동인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남북한 통일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 해도 적어도 정치적 제도적 통일과 함께 남북한 사이의 내적 통합을 촉진하는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필요조건으로 간주될 수는

¹ 송정호·조정아,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정책과 통일교육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평화학연구』, 제10권 1호 (2009), p. 167.

² 함택영 외, “남북한 평화체제의 건설과 통일교육: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수렴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9권 4호 (2003), p. 46.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 통일을 위한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전제할 때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초중등학교 수준에서의 통일교육이나 사회 통일교육과 구별되는 독특한 측면이 있다. 먼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자유로운 진리 탐구의 가치 이외에 분단 상태의 극복이라는 국가 사회적 요구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대학은 진리의 탐구라는 본연의 가치를 지향하고 추구하는 지적 공동체이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대학은 복잡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관심을 넘어 그 대안과 해법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요구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대학들은 남북분단의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국가 사회적 의무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대학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 사회적 문제의 본질에 관해 아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 사이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자유롭고 독립된 시공간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대학이 초중등학교와 다르게 남북한의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남북한 관계나 통일문제에 대한 주체적 관심이 다른 어떠한 시기보다 대학 시기에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령상 20대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은 불확실하고 역동적인 남북한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를 사실상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중심 세대라는 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이들의 관심과 참여는 남북한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다.

Ⅲ. 20대의 통일의식: 내용과 특징

1.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일반적으로 통일의식이란 통일에 대한 태도(attitude) 전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일에 대한 감정(affect), 인식(cognition), 그리고 행태(behavior)를 포괄하는 개념이다.³ 하지만 통일의식은 남북한 통일문제 이외의 다양한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요컨대 남북한 통일문제가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배경

³ 박명규 외, 『2009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 p. 4.

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의식은 남북한 통일 자체에 대한 의식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이해와 인식,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통일의식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북한과 통일문제, 남북한 관계, 대외관계 그리고 대북정책 등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느끼는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통일의식에 대한 양적 연구의 경우 통일에 대한 관심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추정, 통일정책의 평가, 바람직한 통일유형, 북한에 대한 인식 등이 자연스럽게 포함되기 마련이다. 요컨대 우리가 통일의식이라고 할 때는 통일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통일을 자기 자신과 연관 짓는 통일 유관성, 통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통일 개입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의식의 변화를 논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통일의식은 사회 및 개인의 이념적 지평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이념과 이해관계 그리고 통일의식 간에는 수많은 갈등 지점들이 존재하고 있다.⁴ 따라서 이러한 다양성과 갈등 요소들을 간과하거나 무시한 상태에서 총체적인 통일의식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세력관계의 변화 뿐만 아니라 한반도나 국내 상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⁵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일의식 전반에 관한 종합적이고 시계열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남북한 관계 및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의 흐름을 확인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남북한 관계의 전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과연 통일문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를 계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면, 이것은 남북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물론 남북한의 통일 과정을 준비하는 데 매우 유용한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⁴ 김현옥, “통일의 의미와 통일의식의 내적구조,” 전성우 편, 『남북한 사회통합의 길 - 그 현황과 전망』 (서울: 금양출판사, 2001).

⁵ 지금까지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과 태도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에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낮아지고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높게 나타나곤 하였다. 이처럼 통일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나 태도는 개인의 정치적 관점이나 지향성뿐만 아니라 시기적 요인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period effect)고 볼 수 있다. 온기수, “통일과 북한에 관한 사회조사의 동향과 실태,” 『통일과 평화』, 제2집 2호 (2010), p. 68 참조.

남북한 관계에서 국민의 의식이나 사고는 단지 현실을 반영하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정의하고 문제를 규정하며 미래를 창조적으로 구성해가는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과 남북한 관계, 한반도 통일 등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은 정책 형성이나 평가를 위한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장차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부분이고 남북한 통일은 기존의 정치 경제적 질서를 크게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태도 자체가 독립변수로 작동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⁶

다만 여기서는 대학 통일교육의 방향을 재확인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국민 전체의 통일의식보다는 대학생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 20대의 통일의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⁷ 특히 이들의 통일의식이 강화되었다거나 약화되었다는 차원의 접근보다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통일의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요소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미래 통일세대의 통일의식의 계기적 변화와 특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2. 20대의 통일의식 변화

가.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의 저조

북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통일의식을 형성하는 기본적 내용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통일논의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정도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 이후 실시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에서는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선군정치, 주체

⁶ 박명규 외, 『2010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0), pp. 10-11.

⁷ 여기서는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의 흐름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주로 흥사단의 대학생 통일의식조사(2004, 2007, 2010년)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2007~2011년) 결과를 활용하였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자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9~29세의 교차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대의 통일의식을 분석하였다. 물론 우리 나라의 20대가 모두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20대의 조사 결과가 대학생의 통일의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는 대학생들을 포함하는 젊은 세대가 지닌 통일의식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20대와 대학생 대상의 의식조사 결과를 함께 활용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20대 대학생들의 통일준비와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통일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상, 천리마운동, 꽃제비/장마당, 아리랑축전 등 6개 항목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6개 사건이나 개념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과연 북한에 대한 인지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인가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조사결과는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일반적 관심 내지 이해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표 1>에서 보듯이 2010~2011년에는 200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2007년 조사 이후 대체로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2010년 이후 이러한 경향이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2009년 8월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과 북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 남북정상회담 개최 논의, 2010년 벌어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201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김정일의 중국방문 등 북한 관련 소식이나 남북관계 현안 등이 언론이나 방송에 자주 보도된 데 따른 영향일 수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남북한 관계가 교착상태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통일준비 및 통일공론화 사업 등을 통해 통일교육 쪽으로 정책방향을 조정하면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⁸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북한과 관련된 6가지 항목에 대해 20대의 인지 수준(‘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적 있다’는 응답)이 국민 전체의 인지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대별로 볼 때에도 이른바 386세대로 불리는 40대의 북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반면에, 20대의 북한 인지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젊은 세대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부족하다는 현상적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통일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과 20대가 북한의 실체나 본질을 분명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⁸ 박명규 외, 『2011 통일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p. 62.

<표 1> 북한사회인지도⁹

(단위: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20대	전체	20대	전체	20대	전체	20대	전체	20대
선군정치	46.2	46.4	45.4	45.4	45.4	40.5	52.1	51.4	58.8	57.4
주체사상	81.7	75.1	78.2	73.4	78.0	67.4	81.2	74.6	83.2	78.4
천리마운동	75.0	62.2	78.3	65.6	73.6	55.9	77.9	64.7	73.8	59.7
고난의 행군	46.2	34.5	45.7	38.7	44.7	34.2	53.0	42.9	59.7	48.1
꽃제비/ 장마당(2009~)	38.4	32.8	37.5	31.3	20.6	16.2	32.3	27.8	39.1	31.3
아리랑축전	61.2	48.7	66.2	56.1	61.0	43.3	66.7	53.1	64.4	49.7

한편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2010년 10월 수도권 지역 대학생 1,1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2004년, 2007년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을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28.7%를 차지해 2007년 46.3%, 2004년 44.7%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반면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은 52.1%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07년 조사에서 각각 협력대상과 경계대상이라고 응답한 46.3%, 33.6%와는 대조적이다. 특히 2010년 조사에서는 ‘매우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이 10%로 2007년 5.7%, 2004년 6.2%보다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2008년 이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북핵문제, 천안함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나. 남북한 통일에 대한 무관심의 확산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4.7%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 23.1%,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51.6%)고 응답하였다.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적극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는 10.5%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9.4%, 2007년 9.2%와 비교할 때 미미한 차이는 하지만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대학생들이 늘어난 것이다.¹⁰

⁹ 북한사회인지도 결과는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한 것이다. 20대 자료는 19~29세의 조사결과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1년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40대는 57.5%, 50대 이상은 63.9%로 전체 평균 응답률 53.7%보다 높다. 반면에 20대(19~29세)는 40.8%, 30대는 49.0%로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세대별 편차는 2007년 조사 이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20대는 특히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2007년 53.3%, 2008년 45.6%, 2009년 43.2%로 점점 낮아지다가 2010년 48.8%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자 안보 불안에 대한 반작용으로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원하는 20대의 판단이 일정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1년의 조사결과를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20대의 통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대의 경우 2007년 이후 지금까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대의 경우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률이 2007년 10.6%, 2008년 11.7%, 2009년 10%, 2010년 8.3%, 2011년 10.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2007년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20대의 일관된 변화 추이나 패턴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같은 질문에 대한 전체 응답률 2007년 7%, 2008년 8.5%, 2009년 7.5%, 2010년 6.9%, 2011년 8.2%에 비해 20대의 응답률이 항상 높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40대의 5.7%와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적어도 통일문제에 관한 한 20대가 다른 세대보다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통일의식조사결과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통일의 시기에 대한 견해에서도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통일평화연구원의 2010년과 2011년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젊은 층일수록 통일이 먼 미래에나 가능하거나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반면에 연령층이 높을수록 통일이 가까운 시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0년 조사결과 20대의 경우 통일이 5년~10년 이내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은 17.5%에 불과한 반면에, 30년 이상(27.1%) 또는 불가능할 것(25.7%)이라고 보는 응답은 5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는 2009년 조사결과(30년 이

¹⁰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2010 대학생 통일의식조사 보고서』 (서울: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2010), p. 4.

상 22.8%, 불가능 19.5%)와 비교할 때 남북한 통일을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전체적으로는 통일이 5년~10년 이내로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21.2%, 30년 이상 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응답은 41.4%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결과 역시 2010년과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 5년 동안의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특기할 것은 5년~10년 이내로 예측했던 단기 통일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현격히 줄어든 반면에, 30년 이상과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은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이다.¹¹

다. 통일문제에 관한 실용주의적 접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1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1.6%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민족 의식이 여전히 남북한 통일의 중요한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 간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같은 민족이니까’의 응답률은 2007년 50.6%, 2008년 57.9%, 2009년 44.0%, 2010년 43.0%, 2011년 41.6%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응답률 결과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남북 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이유의 응답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북 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률은 2007년 19.2%, 2008년 14.5%, 2009년 23.4%, 2010년 24.1%, 2011년 27.3%로 증가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강조된 선진화나 경제성장 등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의 영향을 받아 2008년 17.1%, 2009년 18.6%, 2010년 20.7%로 상승해 왔으나, 2011년에는 17.6%로 다시 낮아졌다. 이는 경제적 발전보다 남북한 갈등 및 군사적 대립구도의 극복이 남북한 통일의 보다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²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20대의 응답률은 ‘같은 민족이니까’ 29.5%, ‘남북 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34.9%,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22.8%,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8.1%,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3.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¹¹ 박명규 외, 『2011 통일의식조사』, pp. 27-28.

¹² 박명규 외, 『2011 통일의식조사』, pp. 23-24.

이유들 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반응과 동일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남북 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57.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10년 54.8% 보다도 높은 것으로 20대의 통일인식 변화를 특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대학생을 포함한 20대가 전쟁과 선진화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고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북한 관계를 이념적 틀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통일의 이유

(단위: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20대	전체	20대	전체	20대	전체	20대	전체	20대
같은 민족이니까	50.6	39.1	57.9	45.2	44.0	36.6	43.0	32.0	41.6	29.5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19.2	22.5	14.5	18.2	23.4	26.2	24.1	30.7	27.3	34.9
선진국이 되기 위해	18.7	22.8	17.1	23.9	18.6	24.5	20.7	24.1	17.6	22.8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8.9	11.9	6.8	8.6	8.5	9.2	7.0	8.6	7.2	8.1
북한주민도 잘살기 위해	1.8	2.3	2.8	2.2	4.2	2.0	4.0	3.0	4.9	3.1

이상의 결과는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의 조사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39.1%의 대학생이 ‘긴장완화와 동아시아 평화증진’을 일차적 이유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 25.5%, ‘경제성장’ 16.7% 보다 높은 수치로, 대학생들의 경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관리 등 현실적 차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¹³ 더욱이 ‘긴장완화와 동아시아 평화증진’, ‘경제성장’, ‘국가위상 제고’에 대한 응답률이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민족동질성 차원의 통일 필요성 논거가 많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현실적 공리주의적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파악하는 추세는 점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¹³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2010 대학생 통일인식조사 보고서』, p. 4.

한편 2011년 통일외식조사에서 통일이 남한 사회 전체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20대는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49.2%,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0.8%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는 40대의 응답률 60.3%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30대 47.8%, 50대 이상 45.6%와 비교해 본다면, 대체로 우리 사회의 20대는 통일이 가져다 줄 집합적·사회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통일이 개인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의 20대는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22.9%,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7.1%로 나타나 집합적·사회적 기대감 결과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0년의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률 74.9% 보다도 늘어난 것으로, 20대의 경우 통일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통일을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단 또는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달성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⁴ 따라서 20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한 통일이 국가 사회적 차원의 이익 못지않게 개인의 삶에도 구체적인 이익과 혜택을 결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20대는 통일의 문제를 점점 더 현실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통일이 개개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높지 않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모순된 상황 인식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점점 더 통일문제에 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 통일교육은 남북한 통일이 국가 사회적 차원을 넘어 대학생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동시에 어떠한 이익을 수반할 수 있는가를 일깨워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 통일이 과연 실리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은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문제가 비단 현실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경제학적 가치에 근거해서 판단할 사안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요한 사실은 남북한의 통일문제가 실리적 차원은 물론 당위적 차원, 인도적 차원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할 뿐만 아

¹⁴ 박명규 외, 『2010 통일외식조사』, pp. 30-35; 박명규 외, 『2011 통일외식조사』, pp. 29-30.

나라 개인, 사회, 국가, 국제사회 수준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복합적 과정임을 이해하는 전체적(holistic) 조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칫 남북한 통일문제를 개인 수준의 경제적 실용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주의적, 이익 중심적 논리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극단적으로 남북한의 통일 효과에 대한 손익계산에서 통일편익보다 통일비용이 높게 나타난다면 통일의 필요성 논거는 취약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문제는 도구적 관점에서의 합리적 계산만이 아니라 민족적 관점이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IV. 통일의식 형성의 배경요인

1. 평화적 분단 관리 패러다임의 영향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20대와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형성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는 2000년대 이후 상당 기간 지속된 평화적 분단 관리 패러다임의 직·간접적 영향이다. 기존의 분단 관리 패러다임은 통일이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장기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중시하고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의 선행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은 남북관계를 규정짓는 최상의 원칙이 되었고 합의통일이나 수렴론 등과 같은 평화적 담론이 통일논의를 지배해 왔다.

분단 관리 패러다임 하에서 남북한 통일은 남북관계의 하위에 있는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대북포용 정책의 기조에 따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추진 의지를 제고하는 것 보다는 교류협력의 확대가 보다 중요한 대북정책 목표로 간주되었다. 북한을 타도와 변화의 상대가 아니라 지원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북한 체제가 개혁 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대북정책의 주된 관심사였다. 이른바 ‘법적인 통일(de jure unification)’ 보다는 남북한 사이의 상호체제 인정, 평화정착, 교류협력 등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이루는데 관심이 집중되었다.¹⁵ 그 결과 사실상 통일문제는 가급적 먼 미래의

¹⁵ 김근식, “연합과 연방: 통일방안의 폐쇄성과 통일과정의 개방성-6.15 공동선언 2항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4호 (2003), p. 169.

일로 미루어 놓고 경제 사회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양적 확대를 남북관계 발전의 지표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분단 관리에 기초한 통일담론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을 증대시켜 왔다. 통일이라는 명제의 당위성을 평화 유지로 대체시킴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저해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왔다.¹⁶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비전이 희석되거나 모호해지는 가운데 통일은 실현가능하지 않고 심지어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소극적·부정적 통일의식이 증가한 것이다. 통일 비전이 불투명해지고 통일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권에 대한 자신감이 약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도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는 젊은 세대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¹⁷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사회적 관심이 결여되면서 통일교육에서도 적극적인 통일논의 보다는 현상유지적 가치관이 확산되었다.¹⁸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통일교육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을 포함한 20대의 통일의식 형성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 남남갈등의 투영

우리 사회는 2000년을 전후로 남북한 관계나 통일문제를 둘러싼 인식 내지 접근방법의 차이가 노정되면서 남남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관계 개선과 통일논의를 위한 사회적 토대가 취약해졌고 그만큼 통일방안이나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 또한 약화되고 있다. 남남갈등의 표출은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의 교육적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일 및 북한문제와 관련된 생각과 태도의 차이가 기존의 이념, 세대, 계층, 지역간 갈등요인들과 결합되어 복합적 중층적으로 나타나면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 내용을 둘러싼 이견의 조율 내지 갈등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¹⁶ 김진하, “분단관리 대북정책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과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10), p. 242.

¹⁷ 최진욱, “통일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분단 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최진욱 편, 『한반도 통일과 주변4국』 (서울: 늘봄플러스, 2011), pp. 32-33; 실제로 분단 관리 패러다임 하에서 정부의 대북 지원과 교류협력 정책에 대한 20대의 지지는 40대 이상의 기성세대 보다 높지만, 오히려 통일 당위성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¹⁸ 고성준 외, 『청소년 대상 통일 필요성 논리 개발』 (통일교육원 연구용역보고서, 2010), pp. 77-80.

국민의 정부 이후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을 통해 통일교육을 제도화하는 등 남남 갈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1999년 2월에는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 발효하였고, 2001년에는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을 공포 시행하였다. 그리고 2000년 이후 각급 교육기관과 유관단체에 통일교육지침서를 제작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 동안 자생적으로 통일교육을 담당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별 통일교육협의회로 조직화되어 통일부의 지원과 관리를 받게 되었다.¹⁹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를 둘러싼 갈등구조가 잔존하는 가운데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이견과 혼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한 관계의 폭과 깊이 그리고 속도 등에 관한 세대, 계층, 지역간 갈등의 표출, 특히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남북한 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이 와해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조류는 대학 공동체와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양한 층위의 갈등이 성숙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통일과정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거나 통일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대학 통일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대북인식과 통일관의 차이가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자들에게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²⁰ 그에 따라 피교육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경우 대학 통일교육의 교육적 효과는 물론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사회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대학 통일교육의 부재 혹은 결핍²¹

통일교육의 부재 내지 결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학 통일교육의 현실 또한 20대와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¹⁹ 박광기 외,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11-18.

²⁰ 변창구, “한국 통일교육의 쟁점과 방향 - 남남갈등을 중심으로,” 『통일전략』, 제10권 제2호 (2010), p. 18.

²¹ 위에서 지적한 분단 관리 패러다임의 한계나 남남갈등의 역기능 등과 같은 문제의 해결은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이기 보다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 그리고 정치문화의 변화 내지 사회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대학 통일교육이 처한 현실적 한계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을 보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와 같은 대학 통일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진단에 기초하여 교육적 처방이라는 관점에서 그 대안을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부록 1> 대학의 북한 및 통일 관련 교과목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남북한 관계나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대학의 현실이다. 실제로 대학 통일교육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학에서의 통일 관련 강좌가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편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강좌개설 현황이나 교수 내용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²

대학 내의 통일교육은 주로 윤리교육과, 정치외교학과 등 남북한 관계나 통일문제를 다루는 일부 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통일교육의 대상이 특정 전공학생 내지는 관심있는 소수의 학생들에게 국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의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공에 구애받지 않는 교양과정을 통한 통일교육의 경우 또한 관련 과목이나 내용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대학을 제외한 대부분 대학의 경우 통일교육 관련 교과목이나 주요 내용이 북한정치나 북한(사회)의 이해 등에 치중되어 있어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의식을 함양한다는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를 구현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객관적 사실과 다양한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통일논의가 부족한 것도 대학 통일교육의 성과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탈냉전과 함께 남북한 관계나 통일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한된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관련 지식과 정보의 습득은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그에 따라 북한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객관적 평가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은 학교수업보다는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통일 및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의 2010년 10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접하는 주요 통로를 묻는 질문(1, 2순위를 답하는 형태)에 대해 언론이 71%, 인터넷이 49.5%를 차지한 반면 학교수업은 12%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의 방향과 내용이 대학생들의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인터넷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관련 정보의 습득도 2004년 35.8%, 2007년 49.6%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에 학

²² 이경태, “바람직한 대학 통일교육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제11집 3호 (2004); 강성운 외, 『통일교육표준화방안연구』 (전국대학북한학과의협의회, 2005년 통일교육원 연구용역보고서, 2005).

교수업의 영향력은 2004년 14.6%, 2007년 10% 등으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³

대학 통일교육에서 공식적인 교과목의 취약성은 이전의 통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는 현상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실시한 대학생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의식이 형성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4년 14.2%, 2009년 7.2%에 불과하다.²⁴ 이는 대학에서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통일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통일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학 통일교육의 부재 상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근래에는 이와 같은 대학 통일교육의 구조적 제도적 취약성에 더하여 시장의 논리가 통일교육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협애하게 만들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론 대학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관과 그에 따른 시장의 논리와 경쟁의 가치가 대학의 통일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대학교육 또한 경쟁과 실용의 시장가치에 의해 지배되고 재편되고 있으며 그런 만큼 통일교육의 위상과 역할이 위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 관계나 통일의 문제를 자신의 관심사나 공동체의 문제로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는 성찰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학이 처한 현실이다.

V. 대학 통일교육의 결핍을 넘어

대학 통일교육이 본래의 의의를 되찾고 국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한 합리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정책의 기초와 통일교육의 방향이 정치체제 권위당국자들의 교체와는 독립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특정한 정치체제 권위당국자들의 이념이나 이해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 통일교육 담당자들의 주관적 인식이나

²³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2010 대학생 통일의식조사 보고서』, pp. 23-24.

²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학생 평화·통일의식조사』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9년도 청년통일의식조사』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9).

가치판단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북한과 통일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논의의 과정이 활성화될 때 남북한 관계나 통일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심화되고 20대 대학생들의 관심 또한 커질 수 있을 것이다.

1.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과정의 활용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공식 교육과정을 활용함으로써 통일교육의 기회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북한이나 통일 관련 전공에 속하거나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현행 대학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전공의 보다 많은 학생들이 남북한 관계나 통일문제 등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02년과 2010년에 교육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대학생들은 수강기회가 주어진다면 북한 및 통일 관련 과목을 공부할 의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일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상당수는 통일교육이 남북한 통일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통일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²⁵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해나 통일문제 등을 다루는 교양과목을 필수나 선택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남북한 관계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²⁶ 최소한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고 남북한 통일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대학생들 스스로도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²⁷

또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공식적 교육과정의 재구조화를 통한 관련 교과목의 이수 이외에도 다양한 비공식적 교육활동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비공식적 교

²⁵ 성장환·김영하, “교대생들의 통일비용에 관한 의식조사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0집 제1호 (2002); 차승주,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원 연구용역보고서, 2010); 부산대학교 학생 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용하·김태완의 조사연구에서도 대학 통일교육이 학생들의 통일의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용하·김태완, “통일교육 방식과 내용에 따른 통일·평화의식의 변화,” 『한국민족문화』, 제26호 (2005) 참조.

²⁶ 변중헌, “대학 통일교육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윤리연구』, 제78호 (2010), pp. 311-312.

²⁷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학생 평화·통일의식조사』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4).

육과정은 교육의 체계성이나 학생들에 대한 구속력 등에서는 취약할 수 있으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적 관심을 제고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최근 일부 교육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실습과 통일교육의 연계 프로그램 등은 비공식적 교육활동을 통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²⁸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공모전이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일부에서 주최하는 대학(원)생 통일논문 공모 등의 행사 참여는 비공식적 교육과정에 기초한 실제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²⁹ 또한 통일과 관련된 현장 탐방이나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판문점, JSA, 오두산 통일전망대, 도라산역, 도라전망대, 제3땅굴 답사나 최전방기행, 하나원 등을 포함하는 (가칭)통일문화대장정 프로그램 등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시작된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또한 통일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새롭게 하고 대학에서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통일 미래를 주도할 창의적 능동적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연구소에 특별과정 개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³⁰ 그 밖에도 특별강좌와 현장체험, 통일포럼 등 다양한 방식의 통일교육 방안이 구안되고 적용될 수 있다면 전반적인 대학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오프라인과 온라인 통일교육의 통합

대학 통일교육은 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통일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나 동인을 활용해야 한다.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정보사회의 심화는

²⁸ 2006년 개설된 서울대학교의 사회봉사 교과목 또한 특정 통일 관련 교과목을 통한 통일교육이 아니라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liberaledu.snu.ac.kr/information/sub05_01_04.htm> (검색일: 2012.4.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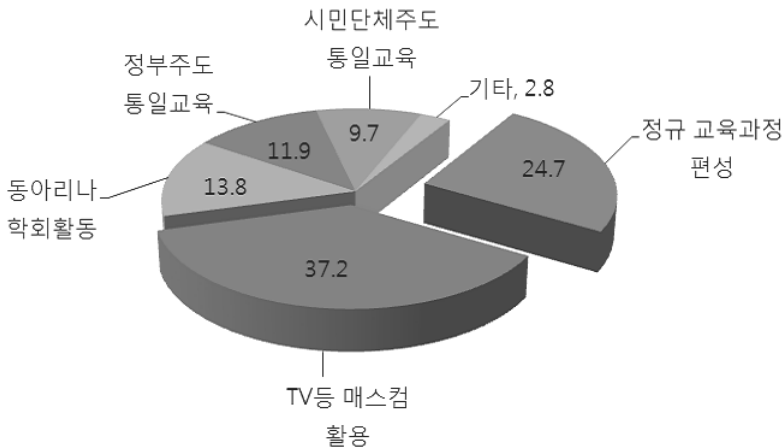
²⁹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PG0000000346>> (검색일: 2012.4.17) 참조.

³⁰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http://www.kaurinu.or.kr/class/>> (검색일: 2012.4.8);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는 통일을 대비한 역량을 강화하여 다가오는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의 사회 문화 통합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원)생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2012년도 전국대학연구소(원)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아카데미(3개)와 통일포럼(10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교육방법은 물론 그 내용과 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 바,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교육활동과 대비되는 방송,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의 중요성을 심분 활용하는 대학 통일교육이 요청된다. 더욱이 최근 대학생들은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의 대부분을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취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형성에 언론매체, 인터넷 등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의 2004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37.2%의 대학생들은 TV 등 매스컴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통일교육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특히 주목할 것은 2000년 이후 인터넷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식적인 통일교육보다 인터넷이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통일교육은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통일 관련 주제에 관한 온라인 토론을 유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일깨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 1>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안



³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학생 평화·통일의식조사』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4).

하지만 인터넷의 영향력은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역기능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통일교육은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요컨대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획득한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올바른 시각의 정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실적 지식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균형감과 공정성에 입각해 현상을 파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변증법적 미디어 읽기(dialectical media reading) 능력이다.³²

3.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조화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통일교육의 기초라고 한다면, 북한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 등이 대학 통일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통일교육은 이러한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통일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통일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접근과 함께 실제적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이 유기적으로 조화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통일교육 수업은 교수자 중심의 지식 전달이 용이한 강의식 주입식 수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수업방식은 정해진 시간에 가능한 많은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식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 중심이기 보다는 교수자 중심의 수업으로 학습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적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 통일교육은 북한 및 통일 관련 주제들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함께 통일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학 통일교육은 일방적인 강의식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로 하여금 실천적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통일교육의 구체적 과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학 통일교육은 구체성을 지닐 때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예컨대 대학 통일교육은 최신 영상자료를 활용하거나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학생

³² 변증법적 미디어 읽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변중현, “대학 통일교육의 역설과 활성화 방안,” p. 22 참조.

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야 한다.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과 대화 및 토론의 기회는 생동감 있는 실제적인 통일교육이 될 수 있다. 학생들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가칭)통일캠프 프로그램 등도 추상적인 북한 이해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의 삶과 북한의 실상을 경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무장지대 통일교육과 같은 현장교육도 매우 유용한 대안 가운데 하나이다. 비무장지대는 군사적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생태보호와 지역개발 등 다양한 주제가 함축된 대상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통일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다.³³

아울러 대학 통일교육은 연구와 교육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대학 공동체 스스로가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진지한 성찰과 학문적 탐구에 진력함으로써 아카데미즘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오늘날 대학들은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학문적 이론적 탐구와 논의를 왕성하게 자극하고 재생산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성과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교육에 접목시키고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대학 사회는 분단과 통일이라는 학문적 대상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탐구하고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더 나아가 분단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통일교육에도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VI. 맺음말

대학 통일교육은 초중등학교 통일교육과 사회 통일교육의 일종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초중등 통일교육에 비해서 체계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 통일교육 자체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20대를 이루는 대학생들은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시대를 선도해야 할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이 지닌 통일의식은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미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학 공동체는 진리 탐구라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국가 사회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통일논의를 확대하고 통일교육을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실시된 여러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20대와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이 낮고, 남북

³³ 비무장지대 통일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재한, 『DMZ평화답사』 (서울: 오름, 2006) 참조.

한 통일에 대해서도 점차 무관심해지고 있다. 또한 남북한 통일문제를 당위적 감정적 차원보다는 실리적 이성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 의식의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분단 관리 패러다임의 영향 그리고 남북한 관계의 폭과 속도, 통일문제에 관한 인식 차에 기초한 남남갈등이 표출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대학 통일교육의 부재 내지 결핍 상태가 젊은 세대의 통일 의식 형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생을 포함한 20대의 통일 의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통일교육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대학 통일교육 전반에 걸친 재구조화와 구체적 대안 마련이 요청된다. 나아가 대학 통일교육의 경우 공식적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비공식적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사회의 환경 변화에 맞추어 오프라인과 온라인 통일교육의 유기적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대학 공동체는 분단 상태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바탕으로 남북한 통일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의 균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접수: 04월 16일 ■ 심사: 05월 18일 ■ 채택: 06월 01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성운 외. 『통일교육표준화방안연구』.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2005년 통일교육원 연구용역보고서, 2005.
- 고성준 외. 『청소년 대상 통일 필요성 논리 개발』. 2010년 통일교육원 연구용역보고서, 2010.
- 김병로 외. 『2007 통일 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07.
- 김재한. 『DMZ 평화담사』. 서울: 오름, 2006.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학생 평화·통일 의식조사』.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4.
- _____ 『2009년도 청년통일 의식조사』.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9.
- 박광기 외.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박명규 외. 『2008 통일 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
- _____ 『2009 통일 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

- _____. 『2010 통일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0.
- _____. 『2011 통일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 차승주.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2010년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2010.
-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2010 대학생 통일인식조사 보고서』. 서울: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2010.

2. 논문

- 김근식. “연합과 연방: 통일방안의 폐쇄성과 통일과정의 개방성-6.15 공동선언 2항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4호, 2003.
- 김진하. “분단관리 대북정책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과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10.
- 김현욱. “통일의 의미와 통일인식의 내적구조.” 전성우 편. 『남북한 사회통합의 길- 그 현황과 전망』. 서울: 금왕출판사, 2001.
- 변중헌. “대학 통일교육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윤리연구』. 제78호, 2010.
- 변창구. “한국 통일교육의 쟁점과 방향 - 남남갈등을 중심으로.” 『통일전략』. 제10권 제2호, 2010.
- 성장환·김영하. “고대생들의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조사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0집 제1호, 2002.
- 송정호·조정아.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정책과 통일교육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평화학 연구』. 제10권 1호, 2009.
- 은기수. “통일과 북한에 관한 사회조사의 동향과 실태.” 『통일과 평화』. 제2집 2호, 2010.
- 이경태. “바람직한 대학 통일교육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제11집 3호, 2004.
- 정용하·김태완. “통일교육 방식과 내용에 따른 통일·평화인식의 변화.” 『한국민족문화』. 제26호, 2005.
- 최진욱. “통일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분단 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최진욱 편. 『한반도 통일과 주변4국』. 서울: 늘품 플러스, 2011.
- 함택영 외. “남북한 평화체제의 건설과 통일교육: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수렴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9권 4호, 2003.

3. 기타자료

-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http://www.kaurinu.or.kr/class/>> (검색일: 2012.4.8).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liberaledu.snu.ac.kr/information/sub05_01_04.htm> (검색일: 2012.4.15).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346>> (검색일: 2012.4.17).

<부록 1> 대학의 북한 및 통일 관련 교과목 현황(2012년 3월)

1. 국공립대학교

	대학	학과	전공	교양
1	강릉원주대			
2	강원대	윤리교육과	북한정치론(3) 북한사회론(3) 국제환경과 통일교육(3)	북한사회이해(3)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와 사회(3)	
3	경남과기대			
4	경북대	윤리교육과	통일교육론(3) 북한체제론(3) 북한사회연구(3)	통일과 북한이해(3)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이론(3)	
		사회학과	북한사회론(3)	
5	경상대	윤리교육과	통일교육론(3) 북한연구(3)	북한정치와 사회(2)
		정치외교학과	남북관계론(3)	
6	공주대	윤리교육과	남북한과 통일교육(3) 남북한관계(3)	북한이해와 통일문제(3) 북한학(2)
7	군산대			
8	금오공대			
9	목포대	윤리교육과	통일교육론(3)	북한의 이해(3)
10	목포해양대			
11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경제(3)	북한의 이해(3)
12	부산대	윤리교육과	북한정치론(3)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론(3)	
13	서울과기대			
14	서울대	윤리교육과	남북한사회연구(3) 북한정치론(3) 통일교육론(3)	북한학개론(3) 남북관계의 변화와 전망(3)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북한의 정치와 사회(3)	
		사회학과	민족사회학과 북한연구(3)	
15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남북한관계(3)	남북분단과 통일(3)
16	순천대			민족통일론(2)북한학(3) 북한의 정치와 사회(3)

17	안동대	윤리교육과	북한정치론(3) 통일교육론(3)	통일과 남북관계(3)
18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론(3)	
19	전남대	윤리교육과	남북한정치경제교육론(3) 남북한평화교육론(3)	
		정치외교학과	남북한관계론(3) 북한정치(3)	
20	전북대	윤리교육과	북한정치이해(3) 평화통일론(3)	북한의 이해(3)
		정치외교학과	북한의 이해(3) 북한정치론(3)	
21	제주대	윤리교육과	북한정치경제연구(3) 북한사회문화연구(3)	북한 및 통일론(2)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론(3)	
22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남북한관계론(3)	민족분단과 통일문제(3)
23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의 정치와 문화(3)	북한의 이해(3)
24	충북대	윤리교육과	통일교육(3) 북한연구(3)	
		정치외교학과	남북한관계론(3) 북한정치외교론(3)	
25	한국교통대			
26	한경대			
27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통일연구특강(3) 통일교육론(3) 북한사회의 이해(3)	
28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북한사회 바로보기 북한의 사회와 경제	
29	한체대			
30	한국해양대	법학전공	북한법(3)	북한의 이해(2)
		동아시아학과	북한의 사회와 문화(3)	
31	한밭대			

2. 교육대학교/ 교육대학

	대학	심화과정	전공	교양
1	공주교대	윤리교육	통일교육론(3)	
2	광주교대	윤리교육	통일론(2)	
3	경인교대	윤리교육	통일교육론(2)	남북통합과 한반도의 미래

4	대구교대			통일교육(2)
5	부산교대	윤리교육	북한과 통일론(2)	
6	서울교대	윤리교육	북한문제의 이해(2)	
7	전주교대			
8	진주교대	도덕교육	통일교육론(3) 북한사회와 교육의 이해(3)	한국사회와 통일(2) 북한사회론(2)
9	청주교대	윤리교육	남북한통합 및 체제비교(3)	
10	춘천교대	윤리교육	통일교육(2)	통일문제 연구(2) 북한 말글의 이해(2)
11	제주대 교육대학	윤리교육	초등통일교육론(3)	
12	교원대	초등교육과	초등통일교육론(3)	
13	이화여대 사범대학	초등교육과		

3. 사립대학교(*북한학과 설치대학/**북한학연계전공 운영)

	대학	학과	전공	교양
1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한국분단사(3) 북한정치(3)	
2	경기대	국제관계학과	북한의 역사와 문화(3) 북한의 정치와 사회(3) 북한의 대외관계(3) 북한문제세미나(3)	북한사회의 이해(3)
3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론(3) 국제정치와 남북한관계(3)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 주민생활의 이해
4	경성대	정치외교학과	북한과 동북아(3)	
5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론(3)	
6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외교론(3)	
7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론(3)	북한의 정치와 사회(3) 분단시대의 남한과 북한의 이해(3)
8	관동대			
9	광운대	국제협력학부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3)	
10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분단국통일론(3)	북한사회의 이해(2)
11	대전대	군사학과	북한군사론(2) 북한학연구(2)	

12	대진대			북한사회의 이해(2) 통일정책의 이해(2) 북한학(2)
13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의 정치와 대외관계(3)	
14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북한사회와문화(3) 통일과 민족문화(3)	북한사회의 이해(2)
15	동명대			북한학(2)
16	동아대	윤리문화학과	통일교육론(3)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론(3)	
17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경제론(3)	
18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와 통일문제(3)	국제정세와 한반도통일
19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론(3)	남북관계와 통일(2)
20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경제(3)	
		경제학부	북한사회경제(3)	
21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현대북한의 정치(3) 북한정치특강(3) 남북한 관계의 이해(3) 통일한반도의 미래상(3)	통일과 민족의 미래(3) 북한의 이해(3)
22	서경대	군사학과	북한학(3)	
23	서원대	윤리교육과	북한 및 통일교육(3)	
24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론(3)	북한경제의 이해(3)
25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통일교육론(3)북한사회문화론(3)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외교론(3)	
26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의 정치와 외교(3)	북한의 이해(3)
27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분단체제와 통합(3) 북한의 정치와 경제(3)	북한의 이해(3)
28	신라대	국제관계학과	남북통일과 국제관계(3)	
29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3)	북한사회의 이해(3)
30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3) 북한정치영어월강(3)	한반도 통일정책론(3)
31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론(3)	
32	울산대	정치외교학과	남북한관계론(3)	북한학(2)
33	원광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3)	
		도덕윤리교육전공	북한정치(3) 통일교육론(3)	

34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의 이해(3)	
35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북한정치론(3) 남북한 관계론(3)	
36	청주대	정치학과	북한정치론(3) 남북한정치론(3) 북한과 한반도정치(3) 한국의 안보와 통일(3)	
		사회학과	북한사회론(3)	
37	한남대	정치언론국제학과	남북관계와 북한체제변동론(3)	통일문제의 이해(3)
38	한라대			민족통일론(3)
39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한국안보 통일정책론(3) DMZ와 평화세미나(3) 북한정치론(3)	
40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남북한 통일문제 세미나(3) 현대북한의 이해(3)	
		국사학과	북한의 역사(3)	
41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의 정치와 사회(3) 통일문제연구(3)	북한정치론(2)

The Task of Unification Education at Colleges

Jong-Heon Byeon

Under the premise that unification education could be regarded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Korean unification, this article provides some ways for initiating unification education at the college level. In this vein, this paper examines levels of consciousness on unification among college students in their twenties. Along with the general decline of consciousness regarding unification issues, recent survey results show widespread indifference towards and ignorance of North Korea throughout the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develop unification education at the college level is to reorganize the official curriculum to provide extensive and comprehensive formal schooling. In addition, unification education has to utilize various teaching methods that stimulate active participation. Furthermore college as an intellectual community has to try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research and education on unification-related issues.

Key Words: Korean Unification, Unification Education, Consciousness on Unification, South-South Conflict, Division Management Paradigm